

스판덱스 증설경쟁 가격붕괴 우려

동국무역, 2004년까지 6000만톤 건설 계획 ... 태광산업 참여 가시화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의 스판덱스 설비증설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화학섬유업계에서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던 스판덱스마저 가격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학섬유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중국 강소성 상숙시 경제개발구에 스판덱스 생산법인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이번 주 안에 중국 공단과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태광산업은 현재 국내에만 2만4000톤의 스판덱스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법인은 2004년 3월 설립할 예정이다.

동국무역도 중국 광둥성 주해시에서 10월 중 스판덱스 생산설비 건설에 착수해 2004년 8월 6000만톤 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동국무역은 이후 증설을 통해 2006년까지 중국 현지 생산규모를 1만8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어서 현재 보유한 국내설비 2만톤을 포함하면 한해 생산능력이 3만8000톤으로 늘어난다.

스판덱스 생산량 국내 1위인 효성은 중국 광둥(廣東)성에 8000톤의 스판덱스 공장을 설립해 2004년 말 완공할 예정이며 유럽지역에서도 1만6000톤의 스판덱스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효성은 현재 국내와 중국에 각각 2만2000톤, 1만4000톤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증설계획이 완료되면 한해 생산능력이 6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 DuPont, 일본 Asahi, 중국 엔타이 등 세계적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이 중국에 스판덱스 설비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2003년부터 스판덱스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화학협회가 입수한 중국방직경제정보 등 중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스판덱스 생산량은 2002년 4만톤이었으나 2003년 들어 증설이 잇따르면서 2003년 8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2002년 5만4000톤이었던 수요는 2003년 6만-7만톤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2003년부터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현재 10여개 기업에서 진행중인 증설계획이 완료되면 한해 생산능력이 10만톤을 넘어 가격붕괴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스판덱스 가격은 2002년 40데니어 레귤러 제품 기준 kg당 9-10달러였으나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위축과 공급증가 등으로 현재 8.5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판덱스 가격은 설비증설이 집중됐던 2000년에도 kg당 20달러에서 1년 사이 12-15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었다.

화학섬유업계 관계자는 스판덱스 세계 수요가 매년 7%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시장이 매년 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증설이 집중돼 공급과잉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스판덱스도 Polyester처럼 가격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09>